









빅토르 오프타의 대표작인 저택은 4개로, 순서대로 타설, 솔베이, 반 에트벨데, 오프타의 저택과 아틀리에이다.

19세기 말에 걸쳐 이루어진 근대화로
자국의 전통을 버리고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전체가 비로오로가자오로자태은

관료화 과정과 조직품종화이다.



핵심역량 키워드

이것은 개방구조, 빛의 화상, 그리고 장식적인

공식적인 권력 구조와 아주 밀접하게 통합되어 있어서

THE PROTEST



RESEARCH: 1894

REINHOLD

THEY: 1911

REINHOLD

다들 물어봐

